

‘최형우 멀티홈런’ KIA, 삼성에 8-7 짜릿한 역전승

선발 헛터 3회 6실점 허용 ‘부진’ 불구 최형우 4타점 맹활약

9회말 임창용 1이닝 무실점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달성

KIA가 최형우의 멀티홈런에 힘입어 삼성에 8-7 역전승을 거뒀다.

KIA 타이거즈는 1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18 신한 MY CAR KBO리그 경기에서 8-7로 승리했다.

이날 선발 헛터가 3회 6실점을 허용하며 부진했지만, 최형우가 멀티홈런으로 4타점을 쓸어 담으며 맹활약, 역전승에 성공했다.

삼성이 먼저 웃었다. 1회 사구와 안타로 1.3루 기회를 맞은 삼성은 러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하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다.

3회에는 KIA가 웃었다. 안타와 볼넷으로 2사 1.2루 기회를 잡은 KIA는 최형우의 3점포로 3점을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삼성 타선의 응집력이 폭발했다. KIA 선발 헛터를 상대로 1사 후 7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대거 6득점에 성공했다. 헛터의 보크와 수비 실책도 한몫했다.

헛터는 3회에만 11명의 삼성 타자를 상대하며 53개의 공을 던졌고, 결국 투구 수가 많아진 헛터는 4회 시작과 함께 조기 강판됐다.

그러나 KIA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차근차근 점수를 쌓으며 추격을 시도했다.

5회 안치홍이 바뀐 투수 한기주를 상대로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2점을 만회한 데 이어, 6회에는 볼펜 우규민에게 볼넷 2개와 안타 1개를 뽑아내며 1점을 추가로 올렸다.

점수는 6-7, KIA가 삼성에 1점 차로 따라 붙었다.

그리고 7회초, 최형우가 다시 한 번 홈런포를 가동하며 동점을 이끌어냈다. 7회초 삼성의 바뀐 투수 최중연을 상대로 좌월 홈런을 쏘아 올리며 1점을 추가, 7-7 동점을 만들었다.

분위기를 탄 KIA는 8회초 거이코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이범호가 안타로 출루했고, 대주자 유재신이 도루와 폭투로 3루까지

안착하며 기회를 만들었다.

결국 2사 후 버나디나가 적시타를 때려내며 유재신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KIA는 8-7 역전에 성공했다.

삼성도 추격의 불을 당겼다. 9회말 선두타자 러프가 KIA 3루수 정성훈의 송구 실책을 틈타 출루했고 박한이가 볼넷을 걸러나 가며 1사 1.2루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타 강민호를 뜬공으로 돌려 세운 임창용이 강한을까지 뜬공으로 돌려 세우며 이닝을 마무리,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날 KIA 선발 헛터 노에는 3이닝 동안 9피안타 7실점(6자책)을 내주고 일찍 교체됐다.

하지만 후속 유승철이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고, 김윤동이 3%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7-6으로 앞선 9회 말 미운도에 오른 임창용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KBO 리그 역대 최고령 세이브를 달성했다.



이수진의 수비 실책과 볼넷으로 1사 1.2루 위기에 몰렸지만 실점 없이 경기를 끝냈다. 최고령 세이브 종전 기록은 최

영필(전 KIA, 만 41세 10개월 30일)이 갖고 있었는데 임창용은 13일 현재 만 41세 11개월 10일을 맞고 있다.

타선에선 최형우가 멀티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필필 일 현재 만 41세 11개월 10일을 맞고 있다.

축구대표팀 엔트리 발표, 선택 아닌 필수 된 ‘플러스 알파’

신태용 감독, 오늘 러시아월드컵 선수 명단 발표

일부 포지션 선수 부상으로 새얼굴 합류 예상돼

드디어 2018 러시아월드컵 무대를 누빌 태극전사들의 면면이 공개된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러시아월드컵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권창훈(디종), 장현수(FC도쿄) 등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 중인 이들이 무난히 승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포지션에는 적잖은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비 포지션을 두고 신 감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팀 경험은 적지만 주전 센터백으로 눈도장을 찍은 김민재와 왼쪽 측면 수비수 김진수(이상 전북)의 부상으로 새 얼굴의 합류가 점쳐진다.

비골 하부 복수야베 골절(김민재)과 왼 무릎 인대 파열(김진수)으로 쓰러진 두 선수는 러시아행의 희망

을 놓지 않은 채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본선까지 100% 컨디션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재의 출전이 어렵다면 최종예선 후 태극마크와 멀어졌던 김영권(광주여 아머그란데)이 재발탁될 수도 있다.

홍철, 김민우(이상 상주)가 버티고 있는 왼쪽 측면은 센터백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 상황에 따라 박주호(울산)도 기용이 가능하다.

염기훈(수원)이 갈비뼈 골절로 이탈한 측면 공격수 백업 자원으로는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이 선택될 공산이 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이창용은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기력이 정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결격사유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이창용은 겨울이적시장에서 임대를 노렸지만 막판에 틀



어졌다. 간간히 교체 명단에는 포함되고 있지만 실제 경기 출전과는 분명 다르다.

출전이 확실시 되던 선수들의 회복이 더디면서 최종 엔트리 23명보다 2~3명이 많은 ‘플러스 알파’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신 감독은 ‘플러스 알파’의 장단점을 두고 고심해왔다. 지난 2일 취재자에게 월드컵 준비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이 대목만큼은 말을 아꼈다. 조직력 국

대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23명으로 손발을 맞추는 것이 낫다. 반대로 몇 명이 더 가세하는 것은 국제 축구연맹(FIFA)에 최종 엔트리를 제출하는 다음달 4일까지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상자 속출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플러스 알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모습이다. 2~3명 많은 선수단으로 21일부터 시작되는 소집 훈련과 국내 평가전을 소화한 뒤 이후 23명을 선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강정호, 그만의 스프링캠프 진행 순조”

피츠버그 지역매체 “라이브피칭·주루 훈련…긍정적 경험 될 것”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무난하게 메이저리그 복귀를 준비 중이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1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브래드던의 피츠버그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강정호의 근황을 전했다.

피츠버그 구단의 스포츠의학 담당자 토드 토퍼는 “강정호가 홀로 일반적인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며 “강정호가 라이브피칭을 보고, 주루 훈련을 하고 있다. 그의 포지션에서 내야 수비 훈련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강정호에게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바리그 무대를 밟은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해 2016년까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데뷔 첫 해인 2015년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비시즌 기간인 2016년 1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중 하차드라이브를 들이받는 사



고를 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여파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지난 4월야야 비자를 발급받은 강정호는 실전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클린트 허틀 피츠버그 감독은 “강정호가 복귀 과정을 30일 내로 마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정호는 벤치 멤버로 아주 조금 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며 “강정호가 다시 주전으로 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복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승환, 5월 무적의 투구..6경기 연속 무실점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오승환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서 7회초 2사 2루에 등판,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 피칭을 기록했다.

이날 오승환은 5월 들어 첫 안타를 허용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6경기, 7%이닝 동안 실점이 없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45로 떨어뜨렸다.

오승환은 2-4로 끌려가던 7회초 2사 2루에서 등판했다.

오승환은 위기 상황에서 핸디 라미레스를 상대했다. 초구에 직구로 볼을 던진 오승환은 컷패스트볼, 커브를 연달아 던져 유격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실점 위기를 넘긴 오승환은 8회에도 마운드로 올랐다. J. D 마르티네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오승환은 잔여 볼아웃까지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직구, 컷패스트볼,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볼배합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오승환은 2사 후 리파벨 디버스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에두아르도 누네스를 3구 삼진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투구수는 18개(스트라이크 13개)였고, 최고구속은 92마일(시속 148km)을 기록했다.

그러나 토론토는 9회초 1점을 더 내주면서 2-5로 패했다. 토론토는 시즌 21승19패를 기록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3위에 머물렀다.

뉴스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땀 국가대표 선수, 톱3는?

홍명보 16경기 1409분 최다·최소 출전 이승열 5분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땀 한국 선수는 누구일까. 대한축구협회 월드컵에 참가한 태극전사들의 출전 경기와 시간에 얽힌 기록을 정리했다.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월드컵 경기를 땀 선수는 홍명보다. 홍명보는 1990년 이탈리아 대회부터 2002년 한·일 대회까지 한국이 치른 16경기에 빠짐없이 출전했다. 국가대표 은퇴까지 동시에 한 박지성과 이영표가 그 뒤를 잇는다. 두 선수는 2002년 대회부터 2010년 남아공 대회까지 함께 뛰었다. 박지성 14경기, 이영표는 12경기에 나섰다.

출전 시간으로 따져도 홍명보가

단연 돋보인다. 홍명보는 총 1409분을 뛰었다. 박지성이 1268분으로 2위, 이영표가 1113분으로 3위다.

교체없이 땀 시간도 홍명보가 1163분으로 1위다. 홍명보는 12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뛰다가 2002년 대회 이탈리아와의 16강전 후반 38분에 처음 교체 아웃됐다. 박지성은 2002 월드컵 포르투갈전부터 2010년 남아공 대회 우루과이전까지 12경기 1137분을 교체없이 뛰었다.

한 대회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2년 대회에서 7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이문재와 송종국이 최다시간 출전이다.

월드컵에 나갔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출전의 기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잠시 그라운드를 밟아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역대 가장 짧은 시간을 땀 선수

는 2010년 대회에 출전한 이승열이다. 이승열은 첫 경기인 그리스전에서 후반 42분 투입됐다. 추가 시간을 포함해도 5분에 불과하다. 이후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두번째로 짧은 시간은 2002년 대회 터키와의 3~4위전에 등장한 최태욱이다. 대회 내내 벤치를 지키던 최태욱은 후반 34분 들어가 11분 남짓 그라운드를 누볐다.

역대 144명의 참가 선수 중 끝내 월드컵 피치에 서지 못한 선수는 31명이나 된다. 대회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의 선수가 벤치만 지켰다.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받는 윤정환, 최문식, 김두현도 수비력과 활동량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월드컵 전술에 따라 한번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경기중 교체거 거의 없는 골키퍼들도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서울이랜드 골키퍼로 활약중인 김영광은 두 대회 연속(2006, 2010) 참가했지만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유일한 선수다.